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16, No. 2, pp. 1~11

한국 가정과 교사교육의 문제점과 전망[1)]

박 명 희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The Problem and Perspectives of Education of Home Economics Teachers in Korea

Park, Myung-H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In this paper, we will be taking a look at the process of training Home Economics teachers throughout history and how to applicate and develop education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society. And after giving a wide overview of how teachers should be trained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Home Economics in general, we will be able to find realistic problems in that process. Through this paper we hope to suggest appropriate alternatives to solve those problems.

Before a new paradigm was brought forward by the 1995 educational reform, there were some policies in the teaching of Home Economics. Until 1987, abiding by the government's 4th reform of Curriculum, Home Economics was a subject for only girls. From 1987 with the start of the 5th reform of Curriculum , policies were changed so that Home Economics, Technology, and Technology · Home Economics could be taught to both girls and boys by decision of the school principal. From 1992 with the start the 6th reform of Curriculum,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were both made compulsory subjects for both boys and girls, and starting from the 7th reform of Curriculum, the subject was combined as Technology · Home Economics with one textbook. This was added into the 10 basic subjects for students in Korea.

The current process of training Home Economics teachers is mostly through related departments such as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Department, Home Economics Department, Home Management Department, Food and Nutrition Department, Fashion Department, etc. After gaining credits for the required subjects (6 subjects) to qualify for Home Economics education certification it will be granted(Beginning in the 1990s, the government began to limit the certification of teachers by college credits. They are

1) 교신저자 : 박명희(parkmh@dongguk.edu)

limiting the number of certified teachers to a certain percentage in the case of other related departments other than Home Economics Education.

A current problem in Korea is the training of teachers qualified to teach the combined subject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The two subjects have officially been made as one subject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but the material and basic studies of the two are so different that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are actually taught separately by teachers of the certain subjects. Presently Home Economics teachers are studying Technology as sub-majors and Technology teachers are taking courses for Home Economics as means of solving those problems, but in the case of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Department there is no separate department for Technology · Home Economics. Furthermore, there are even hardly any Technology Education Departments in universities making it very difficult for future teachers to have a double major in that subject. On top of that, there are serious doubts as to whether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should be taught as one subject and we feel that this problem will be an important issue in the future.

주제어(key word) : 가정과 교사 양성체계(process of training Home Economics teachers), 교육과정개정(reform of Curriculum), 기술 · 가정(Technology · Home Economics), 부전공(sub-majors), 복수전공(double major)

Ⅰ. 서 론

지금 우리 사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20세기의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또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속도에 따라 국가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 견해와 함께 정보화 사회가 가져올 정보격차에 따른 정보부자와 정보빈자의 갈등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운명이 교육의 질에 달려 있다는 판단 아래 교육개혁과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우수한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해주는 나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주는 나라만이 지구상에 생존할 수 있고, 또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교육의 질 향상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혁방안이 나오고 있다. 6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시작된 교육개혁을 시작으로 7차 교육과정개정이 결정되어 2001년부터 드디어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시행된 교육과정이 7차에 거쳐서 개정되고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있어서 지속적인 개선을 해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그 교육과정에 맞는 교사의 양성이 과연 적절하게 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때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어느 사회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사회적 여건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질 향상이나 교육에 대한 기대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으나 이를 재빨리 수용하고 현실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원양성과 임용제도에 관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요구가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정과 교사양성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가정교과의 변화과정에 따라 교사양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야 하는가에 대해 거시적 관점과 현실적 문제를 파악한 후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 논의 하고자 한다.

Ⅱ.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사양성과 임용제도의 변화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고찰하기에 앞서 지난 95년부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적절한 신교육체제의 수립을 위한 중등 교육개혁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사교육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교육체제의 개혁을 위한 중등교육과정의 혁신

지난 1995년 5월 발표된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보고서에 의하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개혁의 배경과 방향을 기존의 교육체계인 산업화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양성인 단순기능인, 단순지식인을 대량 육성하는 교육체계에서, 질을 중시하는, 개성 있고 창의적인 인간을 다양한 영역별로 소량 육성하는 교육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의 방향을 ①학생의 건전한 인성발달을 도모하고 ②학생의 개성신장과 창의적 성장을 극대화한다. ③학생의 능력수준에 맞는 교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단위학교의 교육과정 결정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⑤정보화, 세계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개혁의 기대효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러한 학교교육 개혁은 교사들에게 그동안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하도록 기대된다. 21세기 사회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 개혁은 교사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소경희,2003) 흔히 가르치는 일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가르치는 일'이 사회의 다른 측면과 달리 쉽사리 변화하지 않으며 , 교사들 또한 변화하지 않으려는 집단이라는 것이다.(Carlgren, 1999).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 변화는 교사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일터인 학교교육이 무너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재개념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교사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따른 새로운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교사들의 전문성은 탈전문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Calgren, 1999; Hargreaves&Fullan, 2000; Hargeaves, 2000, 곽병선, 2002)

2)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화

1995년 교육개혁을 기치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전까지의 가정과 교육과정은 대체로 4차 교육과정 실시시기인 1987년까지 가정교과는 여학생만 이수하는 교과였으며 5차 교육과정 개정시점인 1987년부터 가정, 기술, 기술·가정 교과를 남녀 구분없이 학교장이 재량으로 선택하도록 변경하였다. 6차 교육과정실시 시기인 1992년부터는 기술·산업 과 가정을 남녀 모두에게 공동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7차 교육과정 개정부터 교과목을 기술·가정으로 통합하여 한 교과로 하여 국민 공통 기본교과인 10대 교과에 편입시켰다.

3) 가정과 교사의 양성과 임용제도의 변화

교원 양성·임용제도란 전문직업으로서 교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체계와 교직사회에 새로운 인적 자원을 충원하는 제도로서 교사양성체계는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폐쇄형이란 교사양성을 위한 특별교육기관(교육대, 사범대등)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제도이고, 개방형이란 일반 교육체제 내에서 양성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절충형 제도를 택하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정과 교사는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서 가정과 교사를 양성하고 전국적으로 가정교육과가 20여개 대학에 존재해 왔으며 1950~1970년대까지는 국립사범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장학금으로 유치하고 교사를 양성하여 우수한 교사를 전국적으로 고루 배치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펴 왔었다. 그러나 대학의 양적 팽창과 교직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사립사범대학이 설립되고 사립 사범대학에서도 상당량의 교사를 배출하였으며 가정과 교사는 70년대 초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가정대학에서도 다양한 전공자들 중 일정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획득하여 교사를 배출하였다.

1980년대부터 교사자격증 취득자의 수는 급증하였으나 교직수요는 증가하지 않아 교사로의 취업은 매우 어려워 졌다. 정부는 이러한 교직수급 불균형을 대학의 교직과정 인원조정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해결은 한계점을 갖게 되었다. 교직공급자인 교직이수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으나 교직

수요는 한정적이므로 이 시기부터 국, 공립학교 교사 채용은 임용고사를 통해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가정과 교사 양성체계는 가정과 관련학과인 가정교육학과, 가정학과,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등에서 가정과 교사자격증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분야별 교과목을(6개 분야) 이수하면 가정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90년대 들어서부터 정부는 교직이수자의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기 시작하여 가정교육학과를 제외한 타 관련학과의 경우 일정 %만이 교직과정을 이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Ⅲ. 가정과 교사의 교사교육

1) 가정과 교사의 자격

가정과 교사의 자격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구분 없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획득하고 신규 채용 후 5-10년 이내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180시간을 이수하면 1급 정교사자격을 획득하도록 되어있고 더 이상의 의무적 연수는 없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는 일반연수로 60시간 분의 연수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었다(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1994).

■ 중등학교 가정과 1급 정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중등학교 가정과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가정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중등학교 가정과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 또는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가정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중등학교 가정과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중등학교 가정과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졸업자
-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가정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자
- 대학의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식생활학과), 의류직물학과(의생활학과, 의류학과), 소비자·아동학과(학부제 실시대학의 경우, 생활과학이나 가정계열)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 대학 졸업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조교수, 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등학교 가정과 준교사

-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이연숙, 2002)

2) 가정과 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사들을 전문가라고 할 때 전문가로서의 교사들은 그들이 고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chulman(1986)은 교사가 갖추어야할 전문적 지식을 세가지로 제시한바 있다. 즉 교과내용지식(subject matter content knowledge) 교육학일반지식(padagogical content knowledge) 교육과정적 지식(curricular knowledge)이 그것이다. Schulman 이 제시한 전문가로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은 주로 교사 자신들이 전공한 '교과'측면에서 구축되며 교사들을 자신들이 전공한 교과의 구조 및 내용에 관련된 지식,이러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수업방식에 대한 지식, 그리고교과를 가르치기 위한 자료나 교과내용의 수평적, 수직적 관계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소경희,2003)

앞에서 제시된 가정과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과거 다양한 경로로 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가정교과목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 가정교육과 졸업 교사이거나, 가정 또는 생활과학대학에서 관련학부 졸업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획득한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초, 중고등학교의 교사양성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함은 명

백한 일이다(이연숙, 1994). 그러나 가정과 교사 양성기관인 사범대학과 가정과 교사 자격증 취득학과들의 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살펴보면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이 대학의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가정과 교사로서의 자질과 사명을 기르는 교과목의 교과교육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 연숙, 1994). 특히 가정교육과가 아닌 생활과학대학 또는 가정대학의 관련학과의 경우 최소한의 교과목으로 관련분야의 한 과목씩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교사의 교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들어 가정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교과분야는 개정되어 교과교육영역, 영양학, 식품과 조리, 의복재료와 관리, 의복디자인과 구성, 주거와 실내디자인, 가정경영, 소비자학, 아동학, 가족학 등의 기본 이수 영역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0-1호에 의거).

사범대학의 가정교육과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6개 영역을 전공과목에 고루 강좌를 배정하고 각 영역의 균형을 이룬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나 생활과학대학의 식품영양학과, 의류직물학과, 소비자 아동학과, 또는 소비자 주거학과, 가정복지학과 등에서는 위의 영역들의 과목들을 고루 배치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가정대학, 생활과학대학 또는 생활과학부와 같이 공통으로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관련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생활과학대학의 경우 자신의 전공영역분야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지만 교직과 관련하여 6개의 영역을 균형있게 이수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가정교육과를 제외한 타학과의 경우 자신의 전공을 제외한 타 영역에서는 단지 필수로 한 과목씩만을 이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한적 선택으로 인해 실제에 있어서 가정과 교사로 진출했을 경우 교사들의 교과영역지도 능력은 제한되기가 쉽다. 특히 최근들어 교사의 복수전공 권장에 따라 대학에서 학생들의 복수전공을 적극 권하고 있는데 이는 사범대학 학생들의 경우 복수전공을 할 경우 교사 임용고시에서 가산점을 주게 되므로 복수전공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가정과 교사로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전공과목이외에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에서 가정교육학을 전공하였더라도 교사로서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내용을 심도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이 과연 확보될 수 있는지에 강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복수전공의 의미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그것과는 너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회 교사가 지리, 역사를 복수전공으로 할 경우는 각 전공영역에서 핵심적으로 공통으로 이수하는 과목이 겹치게 되므로 복수전공을 할 경우 큰 무리가 따르지 않게 된다.

가정에 있어서도 가정전공자가 식품영양교사, 의류교사, 소비자학 교사, 주거 디자인 교사, 아동학, 가족학 등과 같은 교사 자격증을 복수로 이수할 경우 가정학의 핵심과목과 공통적인 과목을 이수하게 되므로 무리가 없겠으나 현재의 실정은 가정교육과 학생이 수학, 영어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떤 교과목도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 교육학자들의 경우 교사의 전문성을 독립교과 측면에서만 논의 하는 것은, 교사로 하여금 전적으로 개별교과에만 관심을 두게하고 ,교과를 독립적으로 다루게 함으로써 매우 고립된 형태의 교과전문성을 갖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Young ,1998; Macdonal et al., 2002) 이러한 분열화 현상은 중등학교 교육의 지배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Hargreaves,1994) 즉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전공지식보다는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의 부족은 교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이 부족한 교사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즉 교사의 전문성이 교사가 전공하고 있는 교과지식에 그 이상을 소유하는 방향으로 재 개념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적인 실상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다

3) 기존 교사 교육의 특성과 문제

지난 6차 교육과정개정(95년 5월) 당시의 교육개혁안에 따르면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 육성"이 중요한 개혁안으로 제시되고 있었는데

(1)교원양성 및 연수제도 개혁으로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편과 교원 임용 제도의 개선, 교원연수의 강화, 교원의 연수기관 선택권 부여를 제시하고, (2)능력 중심의 승진·보수 체계로 개선하여 일의 양과 어려움에 따른 차등 보수, (3)교사의 연구환경과 효율적 근무조건 조성으로 특별연구교사제 도입, 교과별 또는 학년별 연구실 확충, 교무실 사무자

동화, 자율 출·퇴근제, 교장 명예퇴직제의 실시 방안이 제시되어, 그 중 일부가 현재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기하고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한 교원연수 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① 자격연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개정과 더불어 6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해 왔던 교육개혁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실천방안을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을 정책에 담고 있다.

6차 교육과정 개정 시 제시되었던 중등교육개혁의 경우 다양한 교과를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높인다는 목표는 사실상 교사수급의 문제와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7차에서는 축소 조정되었다. 6차 개정 당시의 가정교육계에서 제시한 중학교 수준에서는 남녀 함께 필수적으로 가정·기술을 이수하는 대신 고등학교에서는 가정의 다양한 하위 단위 교과, 예를 들면 식품 영양, 의류, 주거, 소비자 , 가정경영, 아동, 가족 등의 교과가 개설되어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제안(박명희, 1995)은 무산되었으며 앞의 제안이 가능할 경우 유사한 교과를 2-3가지 복수로 전공하여 가르칠 수 있는 복수전공 교사의 제도가 가능하다는 의견은 엉뚱하게도 관련이 없는 교과끼리의 복수전공이라는 엉뚱한 제도가 되고 말았다.

원래 복수전공교사의 의미는 미국의 중, 고등학교 교사교육에서 나온 제도로서 미국의 경우 교사가 복수전공을 하여 2-3과목을 가르친다는 의미는 수학의 경우 산수, 기하, 대수 등의 세분화된 교과를 몇 가지 복수로 가르친다는 의미이지 우리나라의 현재 제도처럼 미술 담당 교사가 국어나 수학을 21학점의 부실한 부전공 연수를 이수한 후 학생들에게 국어교사로서 가르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미국의 중, 고등학교의 경우는 중학교부터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있어 현재 한국의 대학처럼 자신이 스스로 시간표를 편성하고 강의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수준에 맞춘 강좌를 학생이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이 경우 개설되는 과목은 100-180개 정도의 강좌가 개설된다. 물론 소형의 학교의 경우는 모두 개설할 능력이 없을 경우 주변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에 개설된 과목을 학생의 수준에 맞춰 수강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의 경우 교사는 한국의 대학처럼 한 학기에 유사한 2개의 과목을 가르치기도 하고 3개의 과목을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유사한 과목(공통 사회와 지리라던가, 공통과학과 물리 정도)이며 영어의 경우 듣기와 쓰기, 또는 말하기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를 복수로 가르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에 개설된 과목은 30-40여 개에 불과하여 서로 내용을 달리하는 과목 중에서 미술교사가 수학을 복수전공 하거나 건축, 기계공학 교사가 기술·가정을 복수전공하여 가르칠 수도 있는 제도로 되고 말았다.

기술·가정교과의 경우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은 기술교사가, 가정은 가정교사가 팀 티칭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사에게 이 두 과목을 무리하여 복수전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기술관련 교사는 가정교과목을, 가정교사는 기술의 부전공 연수를 통해 복수 자격증을 획득하고 7차에 통합된 가정, 기술 교과목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교과의 뿌리가 다른 두 교과를 통합하는데 따른 부적응의 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② 직무연수

과거 일반연수는 내용이 한정적이고 교사들의 관심영역별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수프로그램의 제한으로 인해 학교 내에서 일정경력이상의 교사로서 행정직에 대한 관심을 가진 교사에게 인사고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재로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었다. 최근들어 교원의 현직 연수는 평생교육의 이념 하에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고 일반 연수의 내용도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교사 직무연수는 1999년까지 일반연수로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2000년부터 교과 직무연수로 변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기관에서 연수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 주도록 되었고 교사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변경되었다(최미선, 윤인경, 2001).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의 변화 뿐 아니라 교수학습방법도 과거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교육개혁안에 의하면 교원의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주기로 연수를 반드시 받도록 강화하며 선택교과 교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였으며 대학원에서 취득한 담당교과 관련 학위와 사회교

육기관의 전문과정 이수 결과 등을 일정기준에 따라 직무연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거보다는 일부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도 문제점은 존재하는데 연수기관에서의 연수성적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므로 인사고과를 잘 받고자 하는 일부 교사의 경우 동일내용을 연속적으로 이수하여 높은 점수만을 받으려고 고집하거나 점수만을 잘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파행도 일부 존재한다.

가정교과의 경우 가정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지만 실제에 있어 교사들의 적극적 연수의지는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대한 가정학회에서 가정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연수를 실시한 결과 가정담당 교사보다는 타 교과담당 교사의 참여의지가 더 높은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기술·가정교과의 경우 최근에는 가정교사의 기술연수, 그리고 기술교사의 가정부전공 연수를 많이 이수하고 있다. 이러한 교사의 재교육은 연수뿐 아니라 대학원 과정이나 사회교육기관의 전문과정 이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 경우 교원의 자기계발 노력에 대한 재정적 및 시간적 배려가 있어야 하며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거나 기타 연수기관을 통한 자기계발 노력이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차등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노력하는 교사, 능력있는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길이다.

Ⅳ. 가정과 교사 선발제도의 특성과 문제

1) 가정교과 교사의 수요공급

가정 교과의 교사양성은 일제시대부터 제5차 교육과정개정시 까지 중등 여학생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존재함에 따라 1970년대 초까지는 몇 개의 가정교육과에서 교사를 배출하였으나 70년대 이후 가정학의 전문화 발전에 따라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뿐 아니라 가정대학의 일반학과와 일반 대학의 가정교직과정을 통해 그리고 교육대학원의 가정교육전공과정을 통해 가정과 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엄청나게 양산되어있는 실정이다. 가정교과의 경우 60년대 후반 교육과정 개정시 당시의 국가정책으로 1인 1기술 갖기의 국가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갑자기 추가된 기술교과부분을 여자 중·고등학교의 경우 가정과 교사가 담당하도록 제도화시킴에 따라 급작스런 가정과 교사의 수요급증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이 시기 가정과 교사에 대한 공급체계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결과 현재의 경우 과잉공급의 양상이 심각하게 되었다. 95년 제 6차 교육과정 개정 시 남·여 모두에게 이수시키는 공통과목으로서 비로소 자리잡아감에도 불구하고 교과의 시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당시의 현직 가정과 교사의 공급과잉부분과 적체현상이 발생하였다. 현직 가정과 교사의 적체현상이 미처 해결되기도 전에 7차 교육과정 개정에 이르러 교과가 병렬적으로 통합되면서 기술·가정이란 교과로 묶여 버리게 됨에 따라 교사의 수급은 더욱 더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가정과 교사 자격증을 많이 배출했던 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최근 10여 년 간은 가정대학의 교사자격증 이수자의 수도 상당히 제한을 두게 될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교의 가정교육과는 대부분 다른 학과로 전환시켜 가정과 교사의 배출을 억제하고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의 가정교육과의 수는 16개교이며 이 학과를 통해 배출되는 교사의 수도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그 외에 일반가정대학 및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교사 자격증 이수자 수와 교육대학원을 통해 이수하는 가정과 교사 자격증이수자의 수도 전반적으로 그 수가 줄고있는 실정이다. 가정과 교사는 가정교육과에서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며 식품 영양학, 의류학, 주거학, 가정관리학과 등에서도 배출하기 때문에 가정이 수학이나, 국어처럼 단일 과목이 아니며 이미 통합적 성격을 띈 과목이다. 또한 교사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전공자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1년 교원 임용제도는 자유경쟁의 논리아래 교원 양성기관의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제도로 바뀌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도 사립학교의 컨소시움을 통해 교사를 선발 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고 각 사립학교 나름대로의 선발방식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국·공립 중등학교의 교사는 매년 12월중에 실시되는 교원임용고사를 통해 채용된다. 교원임용고사는 서울시, 광역시 및 각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실시하며 시·도 별로 매년 매학년도 교사수급계획에 따라 일시, 장소, 고사과목, 배점비율, 응시자격 및 원서제출절차 등에 관한 것을 시험시행 20-30일 전에 공고한다. 교원 임용고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되며, 1차는 교육학 및 전공과목을 대상으로 필기 시험을 실시하고, 2차는 논술 및 면접, 수업실기 능력평가 등을 실시한다. 필기실험의 출제방식은 교육학의 경우 객관식 4지선다형이며, 전공과

목은 주관식이다 2차 시험에 포함된 수업실기 능력평가는 1999학년도 임용고사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시·도별 세부 계획에 따라 1차 시험 합격자의 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수업기자재 활용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합격자결정은 1차 시험의 성적과 대학성적, 그리고 시·도별로 설정한 가산점등을 종합하여 모집 예정인원의 1.2배수를 선발한 뒤, 2차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된다. 시험의 출제 및 관리는 각 시·도 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교원임용 공동 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1차 필기시험은 1997학년도 부터는 위탁기관인 한국 교육개발원이 문제를 출제하고 시·도 교육청이 채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2차 논술 및 면접, 실기시험은 임용기관인 시·도 교육청별로 주관하여 출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2차 시험의 형태는 시·도 별로 다를 수 있다(소경희, 2000).

2) 교사 임용제도의 문제점

매년 12월이 되면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의 교사자격증 취득자와 졸업생의 경우 그 해의 순위고사 임용인원발표를 보고 시험에 응하게되지만 시험의 경쟁률이 치열하므로 사실상 교사임용 고시라는 말처럼 1년, 2년 또는 몇 년 동안 교사임용고시를 위해 도서관을 다니며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응시자들은 그 해의 임용선발인원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어떤 경우 1명의 임용자도 없는 경우도 생긴다. 임용인원이 있을지에 대한 예측도 없이 무조건 시험준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참담하고 비효율적인 교사수급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임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문제가 중등교원 양성기관이 지나치게 다원화되고 분산되어 교원수급상 엄청난 불균형이 있음을 지적하는 부분이며 교원은 교원수급 정책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는 발상이다. 따라서 수급정책에 따라 일반교직과정이 너무 양산되었다던가 사립사범대학의 축소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또는 교원양성기관의 평가인증제도입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을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에 교원양성기관의 정체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교사 양성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다.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오히려 교과내용에 대해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사범대학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즉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일반대학교육과정과 구별되는 특수성과 정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기존의 사범대학을 해체하고 전문성과 질적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 교원양성기관으로 전환하거나 대학원 수준에서 교사양성을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결여가 생기게된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적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형태의 전문직 양성기관의 경우도 양성기관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제도화 되어있지 않다. 예를 들어 법과대학의 경우 사법고시, 행정고시 준비를 위한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경상대의 경우, 회계사시험, 정법대의 경우, 외무고시 등을 위해 사범대학의 경우, 교사임용고시를 위해 학생들은 대학의 수업보다는 학원의 요점정리식 시험대비 강의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양성기관의 모든 관심이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질 함양보다는 선발시험에 기울이게 하는 양상조차 나타나고 있다. 가정교육과의 경우 실상 임용인원이 결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학생들에게 교사 임용시험을 보도록 추천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힌 경우의 차선책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야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 임용순위고사의 경우 필기시험이 1차의 경우 교육학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전공의 특수성을 감안한 교사양성기관의 특성 자체를 제도적으로 무시하고 사범대의 특성을 제도적으로 오히려 말살하고 있었던 셈이다. 1997년도부터 실시한 교사임용제도에서 사범대학의 특수성을 일부나마 반영하는 면접과 실기시험이 도입된 것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박명희, 2001).

3) 기술·가정 교사 양성

제 1차 교육과정부터 제 6차 교육과정까지(1955-1997년)는 '가정'과 '기술'은 분리된 과목이었고 공통점이라고는 가정은 1차에서 5차 교육과정까지는 여학생이 이수하였고 기술 및 산업은 주로 남학생에게 이수시킨 과목이었다는 점이다. 이 과목들의 담당교사는 '가정'은 '가정과 교사'가 '기술'은 '기술과 교사'가 각각 담당하여 지도하여 왔으며 학문적 배경에 있어서도 기술과 가정은 전혀 다른 교과목이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수를 10개로 제한한다는 총론의 원칙에 따라 「기술·가정」을 교과목명으로 하여 통합,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기술·가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5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실과로 2시간, 7학년에서 10학년까지는 「기술·가정」으로 2·3·3시간씩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6차 교육과정에서의 기술·산업 과목과 가정 과목을 통합교과의 형태를 빌린 병합의 형태로 하여, 두 개의 교과서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로 합본한 교과서를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먼저 대두된 문제는 '이 두 교과의 성격상 통합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태로 할 수 있는가'였다. 기술과는 기술학에 근거한 지식 체계의 교과이고, 가정과는 가정학에 근거한 지식 체계의 교과이다. 서로 다른 성격의 학문 체계가 통합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논리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교과를 완전하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통합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두 교과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고 상호 관련성이 밝혀진 뒤에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학의 어떤 측면과 가정학의 어떤 측면은 통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을 중심으로 기술과 가정이 하나의 독특한 형태의 지식 체계로 통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번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과는 통합이라기보다는 병합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두 교과의 학문 체계는 그대로 살리면서 지도 영역을 중심으로 내용을 병합하였고, 극히 일부분 통합이 가능한 부분만 통합하였다(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1999). 7차 교육과정 입안에 참여했던 교수진이나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사들도 통합이 아닌 병합으로 교과서 내용도 50:50으로 구성하였고, 현장에서의 운영도 기술 교사는 기술 영역을, 가정 교사는 가정 영역을 지도하는 것으로 입안 구성하였다.

기술·가정교과는 내용적으로는 병합의 형태를 취하였지만 법적으로는 통합교과인 셈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신설된 "기술·가정" 교과 교육을 위한 교원자격증이 "기술"(11-12학년 선택과목), "가정"(11-12학년 선택과목)과 "기술·가정"(7-10학년 필수과목)의 3가지 교사자격으로 결정되었다(교육부 고시 〈2000-1호, 2000.1.28〉). 이어 '기술·가정' 교과의 교원양성을 위해 각 대학의 기존 '가정 교육과'에서 '가정'과 '기술·가정'을, '기술교육과'에서 '기술'과 '기술·가정' 중복 표시하도록 하였다(교원자격검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업무추진 요령안내 〈교육부교양 81834-125, 2000.2.15〉).

이처럼 서로 다른 교과를 병렬로 연결하여 "기술·가정"교과라는 명칭으로 남녀 모두에게 이수토록 하는 발상은 사실상 일본의 교육과정을 모델로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 초부터 기술·가정이란 교과목을 교과목의 수를 많게 하지 않을 명목으로 기술·가정으로 운영해 왔으나 실제로 가르치는 교사가 기술·가정교사자격증을 습득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부분은 기술 교사가, 가정 부분은 가정교사가 가르치는 팀 티칭의 형식을 취하고 학생은 이 두 부분을 모두 이수하는 형태로 몇 십년간 운영해 왔다. 최근 일본의 가정과 교육학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오히려 일본의 경우 21세기에 들어서 기술·가정에서 다루었던 가정교과의 기술적 영역보다는 가정교과의 가정경영 및 가족관계영역의 확장 필요성이 강화되어 기존의 "기술·가정" 교과를 "가정" 교과와 "기술 "교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오히려 10대 국민교과로의 지정이란 단순논리를 위해 두 교과를 한 교과로 통합하고 나니 교사양성의 문제가 사실상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술·가정교과를 통합 교과로 인정한다면 이에 적절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나 이러한 교과의 성격에 관해 일치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과 더불어 미래의 전망이 불확실하므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로그램을 가정만이 아닌 기술교과의 전공교과목을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학교마다 기술·가정교과의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것인가를 놓고 유보상태에 있는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교육의 질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놓고 교육환경 속에서 상호 작용함으로써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한 교사자원을

유치·선발·확보하여, 최고도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또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신임교사의 선발도 중요하지만 이미 확보된 교사로 하여금 각자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다른 일반직업과 달리 교사직은 단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질과 적성은 장기간에 걸쳐 성취되고 사람을 키워내는 교사직에 있어서는 경력이 어떤 직종에서 보다 요구되는 직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부 정책은 교과목이나 교사의 양성문제를 장기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다.

가정교사는 오히려 기술·가정이라는 기형적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 하기 보다 고등학교 심화 교과목을 진정 선택심화 과목으로 분리하여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기술·가정에서 가정부분만을 팀티칭으로 가르치고 고등학교 선택심화 과정을 식품영양학, 의류학, 아동발달, 가족관계, 소비자 재무관리 등으로 분리하여 이 부분의 교사자격증을 개발하고 이를 복수전공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등학생들의 직업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탐색과목으로서의 선택심화 과정이 진정한 심화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가정과학이란 한 과목에 묶여 다양한 분야를 비빔밥 형태로 배우는 것은 교육개혁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가정교사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데도 적합지 않은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스승을 어버이처럼 믿고 따르며 스승은 제자를 자식처럼 사랑해야 함을 당연히 여겨왔다.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또 제자를 사랑하는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키워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인터넷에 익숙해있고 기성세대의 성장배경과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인터넷세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사를 키워내는 일은 더구나 어렵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방식도 변화하고 또 가정생활도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람들의 삶을 좀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과 가족의 삶을 스스로 현명하게 관리하고 일상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가정과 교육이다. 이러한 가정교과의 교육을 담당할 가정교사의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할 것이가? 우선 교사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 자신의 삶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가꾸고자 하는 긍정적 자세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며, 변화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 탐구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전통적 생활문화를 아끼고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성숙한 교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육개혁위원회(1995) 제2차 대통령 보고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곽병선(2002)," 교실교육의 개혁과 교사의 수업전문성". 교원교육연구 18(1),1-9

박덕규(2000) 외국학교의 교사선발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광장 2000년 9·10

박덕규(2000) 초·중등학교의 교사수급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광장 2000년 9·10

박명희(1995) 신교육체제 수립에 따른 가정과 교사 양성제도의 개선방향, 1995년 하계학술대회 주제강연,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7권 2호, 125-130

박명희(2000) 기술·가정의 교원양성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교사는 하루아침에 생산되는 생산물이 아니다 - 2000년 동계학술대회 주제발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13권 2호, 113-120

소경희(2000) 중등학교 교사선발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광장 2000년 9·10

_____(2003) '교사전문성'의 재 개념화 방향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 교육과정연구 , Vol.21 No.4 77-96

이연숙(2002) 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신광출판사, 서울

정진곤(2000) 교사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광장 2000년 9·10

최미선, 윤인경(2001) 중등학교 가정교과 교사의 직무연수 운영실태 및 인식조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13권 2호, 85-99

허 형(1995) 대학교육의 개혁방향과 "가정학" 관련학문의 발전모형, 제48차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발표집 '교육개혁과 가정학', 1-18

Carlgren,Ingrid(1999). Professionalism and teachers as Designers. Journal of Curricukum Studies, 31(1), 43-56

Hargreaves,A.(1994). Changing Teachers, Changing Times: teachers' work and culture in the postmodern age.London: Cassell.

Hargreaves, A. & Michael Fullan(2000). Mentoring in the New Millennium. Theory into Practice,39(1),50-56

Macdonals, D. et al(2002). Teacher knowledge and the Disjunction between School Curricular and Teacher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0(3) ,259-275

Schulman, Lee S (1986) . Those Who Understand : Knowledge Growth in Teaching. Educational Researcher,15 (2),4-14.

Young, M. F. D.(1998) The Curriculum of the Future. London : Falmer Press.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정과 교사양성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가정교과의 변화과정에 따라 교사양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거시적 관점과 현실적 문제를 파악 한 후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995년 교육개혁을 기치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전까지의 가정과 교육과정은 대체로 4차 교육과정 실시시기인 1987년까지 가정교과는 여학생만 이수하는 교과였으며 5차 교육과정 개정시점인 1987년부터 가정, 기술, 기술·가정 교과를 남녀구분없이 학교장이 재량으로 선택하도록 변경하였다. 6차 교육과정실시 시기인 1992년부터는 기술·산업 과 가정을 남녀 모두에게 공동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7차 교육과정 개정부터 교과목을 기술·가정으로 통합하여 한 교과로 하여 국민 공통 기본교과인 10대 교과에 편입시켰다.

현재 가정과 교사 양성체계는 가정과 관련학과인 가정교육학과, 가정학과,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등에서 가정과 교사자격증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분야별 교과목을(6개분야) 이수하면 가정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90년대 들어서부터 정부는 교직이수자의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기 시작하여 가정교육학과를 제외한 타 관련학과의 경우 일정 %만이 교직과정을 이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기술·가정과목의 통합으로 인한 교사양성의 문제이다. 법률적으로는 기술·가정을 통합하여 한교과로 만들었으나 내용이나 학문의 뿌리로 보아 이는 한 교과로 통합하기 어려워 내용적으로는 기술은 기술교사가 가정은 가정교사가 팀 티칭을 하는 형태로 지도하고 있고 현직 교사는 가정교사는 기술 부전공 연수를 기술교사는 가정부전공 연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의 경우 기술·가정 교육과는 존재하지 않고 현재 각 대학마다 기술교육과도 거의 없기 때문에 복수전공을 하기도 쉽지 않으며 미래에도 기술과 가정이 통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므로 이 문제는 미래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